



## ITU-T SG13의 미래



이재섭  
ITU-T SG13 부의장  
한국통신 제네바 사무소장

이제까지 우리들에게 N-ISDN(Narrow-band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), B-ISDN 그리고 ATM(Asynchronous Transfer Mode) 등으로 ITU-T 내 어느 그룹보다 잘 알려진 연구반이 SG13이다. 또한 본 연구반은 그 동안 한국의(한국통신, ETRI 등으로 구성) 전기통신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이끌어 왔던 연구반이기도 하다.

이와 같은 중요한 연구반의 새로운 연구회기에 본인이 부의장의 직분을 맡을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그 동안 우리 한국대표들이 본 연구반 활동에 기여한 바가 큰 바탕이 되어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한다. 물론 WTSA 본회의 기간중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던 우리 정부의 노력은 이번에 ITU-T에 직분을 맡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음은 말할나위가 없다.

이제 새 연구회기부터 SG13은 현재의 다양한 프로토콜기술을 근간으로 복잡하게 운영되어 가고 있는 전기통신망의 장·단기 구조문제 및 이종 통신망과 서비스간의 연동을 주로 다루게 된다. 물론 이러한 논의의 중요한 시발점은 현재 서비스 전달기술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IP를 기반으로 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 무선환경 및 향후 방송형 환경(Cable Network 및 Broadcasting 환경 등)과의 연동 및 융합을 위한 기술표준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단기적으로는 VoIP, IP Performance 및 IP QoS 관련된 표준화가 상당히 빠른 템포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QoS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응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궁극적 망 구조 및 능력의 관련표준 개발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.

이러한 SG13의 다양한 연구분야 중 본인은 지난 연구회기까지 담당하였던 망 구조에 관한 표준화 경험(망 구조분야 WP의장)을 중심으로, 이어지는 회기에는 장기적 망 구조 개발, Integrated Networking 기술개발, 이종 망 간 연동 및 망 능력(Network Capability)에 관한 표준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. 이는 국내의 정보통신발전 환경을 고려해 볼 때 IP 관련된 국제표준화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내 초고속 정보통신 환경 구축은 물론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의 구축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.